

# 취업자 ↓ 실업자 ↑ ...광주 역대급 고용 참사

### 실업률 5.3%로 14년만에 최고, 고용률 3개월 연속 떨어져 통계청 '지역 고용동향' ...광주시 단기 일자리 정책 한계

잠담한 수준의 광주지역 일자리 성적표가 나왔다. 실업률은 5.3%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자는 IMF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고용률도 3개월 연속 떨어지는 등 일자리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시장'을 표방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초라하다.

◇역대급 고용 참사=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광주지역 취업자는 73만6000명으로, 1년 전(74만2000명)에 견줘 7000명 줄었다. 광공업(-1000명), 제조업(-1000명), 건설업(-4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9000명) 등 거의 전 분야에서 1년 전보다 취업자가 줄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종사자는 9.9%나 감소했다. 광주지

역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고용률도 58.2%에 머무르면서 1년 전(58.9%)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고용상황의 경우 월·계절에 따른 변동성이 커 같은 달끼리 비교해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2월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2017년 2월(58.0%) 이후 가장 낮았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취업자가 줄었다는 의미다. 특히 광주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났는데도, 일자리가 없다보니 취업문을 뚫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게 경제계 분석이다.

광주 고용률도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그나마 광주시가 노인 일자리 등 재정을 투입하면서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만5000명 늘어났을 뿐이다.

반면, 실업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달 광주지역 실업자는 4만1000명. IMF 금융위기 이후인 1999년(4만6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통계청 설명이다. 1년 전(3만5000명)보다도 7000명 늘었는데 수치로만 보면 감소한 취업자가 고스란히 실업자로 넘어간 셈이다.

실업률도 5.3%로 역대 최악 수준으로, 2005년 3월(5.5%)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여성 실업률은 5.7%까지 치솟았다. '일'과 '구직'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 광주 비경제 활동 인구도 지난달 48만6000만명으로 1년 전(48만3000명)보다 늘었다. 지역 경제에 안팎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자칫 새로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조 투입해 단기 일자리 만든다는데 ...=광주시는 지난해 일자리 3만5184개를

창출하는 데 4000억원 넘게 투입했다. 애초 목표(2만8054개)보다 25% 이상 늘었다고 자평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광주 실업률은 3.8%로, 지난 2009년(3.8%) 이후 9년 만에 최대치였고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울산(1.1%포인트) 다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폭이 컸다. 지난해 실업자도 3만명에 달했다. 전년도(2만2000명)보다 34.7%(8000명)나 늘었는데, 광주 실업자가 3만명을 넘어설 때는 지난 2001년(3만1000명) 이후 17년 만이다.

광주시는 올해도 8700억원을 쏟아부어 3만749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금을 투입해 늘렸던 고용정책의 한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단기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고용 창출력을 높이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48.41 (-8.77)	↓ 금리(국고채 3년)	1.80 (-0.02)
↑ 코스닥	754.89 (+0.13)	↑ 환율(USD)	1132.60 (+2.80)

##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써밋빌리지' 분양

### 55세대 고품격 타운하우스 보안 확실하고 교육환경 우수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일대 프라이빗 타운하우스인 '빛가람 써밋빌리지'가 분양에 들어갔다.

써밋빌리지는 나주시 빛가람동 227-2 일대에 55세대가 들어서는 고품격 타운하우스로 조성되며 현재 28빌지에 대한 분양이 진행 중이다.

써밋빌리지는 단지 외곽 전체를 1.2m 높이로 옹벽을 설치하고 CCTV를 달아 단지의 독립성과 보안을 확보하는 한편, 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도 각 개별 빌지로 인입해 추가 공사비용을 최소화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또 무인택배시스템, 쓰레기분리수거

장을 별도로 조성하고 실내환기 시스템, 에어컨 냉매배관 시스템, 원격검침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장치, 실별 온도제어 시스템을 적용했다.

써밋빌리지 일대에 마트, 복합쇼핑몰, 빛가람종합병원 등이 조성되는데다, 매성중·고교도 신설되는 등 교육환경도 우수하고 매화제공원과 빛가람호수공원 등 쾌적한 녹지환경을 갖췄다.

호남고속도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고 광주공항, 무안공항, KTX 나주역, 광주송정역까지 10이내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이와 한전광대 설립이 확정된데다, 인근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한 투자가치도 높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문의 1877-8141.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형 쏘나타부터 적용된 3세대 플랫폼

## 현대차 차량 기본 성능 높일 '3세대 플랫폼' 개발 완료

### 21일 출시 '신형 쏘나타' 적용

현대차가 차량의 기본 성능을 높일 수 있는 '3세대 플랫폼' 개발을 완료, 21일 출시되는 '신형 쏘나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플랫폼은 서스펜션(충격완화장치)과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부터 중량배분, 무게 중심 등 자동차의 핵심 요소를 결정하는 차체 구조물이다.

1세대 플랫폼의 경우 지난 2008년 YF 쏘나타 등에 적용했고 2세대 플랫폼을 2015년부터 LF 쏘나타 등에 적용해 만들었다.

3세대 플랫폼은 2세대 플랫폼에 비해 안전성능, 연료소비효율, 동력성능, 주행 성능, 디자인 혁신, 에어로다이나믹(공기저항 최소화) 등을 강화했다는 게 현대차 설명이다.

특히 경량화와 충돌 안전도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가벼우면서도 강한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3세대 플랫폼은 평균 강도를 기존보다 10% 이상 높였고 무게는 동급 평균 대비 55kg 이상 감량했다.

또 다중공격 구조 엔진룸을 통해 충돌 시 차체가 흡수하는 에너지를 분산시켜 승객과 상대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했다.

3세대 플랫폼은 주행과 관련된 세 가지 기술적인 개선을 통해 운전자와 자동차의 일체감을 높였고 주행 안정성도 강화했다. 디자인과 실내공간 측면에서도 변화를 줬다.

차량 높이는 기존 대비 30mm 낮아졌고, 엔진룸과 승객실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플랫폼(간차체) 스타일을 구현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연구인력 채용·파견 지원사업 중기부, 참여 중소기업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7일까지 '연구인력 채용·파견 지원사업'에 참여할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진 연구인력의 경우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인력을 기업별 최대 2명까지 기준 연봉액의 50%까지 지원한다. 경력이 많은 인력은 기업당 1명을 3년 동안 기준연봉액 50%,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전자 4Way '무풍 에어컨' 선보여  
삼성전자가 12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국국제냉방공조전'에서 '청정 솔루션 존'을 마련하고 국내 최대 157.4㎡까지 청정 가능한 4Way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무풍 에어컨' 플 라인업 등을 선보였다.

## 대기업 절반 "상반기 채용계획 세우지 못했다"

### 리서치앤리서치 조사...5곳 중 1곳 "규모 줄이거나 계획 없다"

대기업의 절반 정도는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5곳 중 1곳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

한 결과, 응답 기업 126개사 가운데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기업은 46.0%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27.0%, 지난해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은 7.1%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은 12.8%였고, 1명도 뽑지 않겠다

는 기업도 7.1%에 달했다.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작년부터 줄인다는 기업의 경우 채용 규모를 늘리지 못하는 데는(복수 응답) 구조조정이나 긴축경영, 분사 등과 같은 '회사 내부 상황' (30.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내외 경제 및 업종 상황 악화(22.7%),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20.5%), 이직 등 인력유출 감소(14.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신규채용 여력 감소(4.5%) 등의 순이었다.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은 이공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업들이 예상한 신규채용 직종 중 이공계 졸업생의 비중은 평균 57.5%로 조사됐으며 여성 비율은 27.1%, 외국대학 졸업자 비율은 6.5%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올해 채용시장 변화 트렌드로 - '경력직 채용 증가' (55.6%), '대졸신입 수시채용 비중 증가' (50.8%), '블라인드 채용 확산으로 전형 과정의 공정성 강화' (25.4%), '정규직 전환형 인턴제도 도입 증가' (22.2%),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규채용 확대' (16.7%), '채용연계형 산학협력 장학생 확대' (12.7%) 순으로 답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방수

###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 062.673.5858 (모발모발)